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3)

# 불교로 문학하기와 죽음 탐구는

불교 · 문학 · 죽음 탐구 맹난자 수필가



**맹난자 선생은 ...**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숙명여자 중 고등학교를 나와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국대학교 불교철학과를 수료했다. 1996년 <에세이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신행불교> 편집장을 지냈고, 지하철 계시판 <풍경소리> 편집장, <에세이문학> 발행인 겸 주간,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 남촌 문학상, 정경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라데팡스의 불빛> 선집 <땀>,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만목의 가을>이 있으며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와 개정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작가 묘지 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와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가 있다.

인생 그리고 여행, 그 관계풀기  
 인생은 여행일까? 그렇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여행인가? 여행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사치스러운 냄새를 풍긴다. 항상 즐겁기만 할 수 없는 인생, 그 고난의 날들은 어떤 이름의 여행이란 말인가? 차라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해 버리자.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장맛비에 젖은 전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가는 동안 인생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두고 망상에 빠졌다. 입안에 알사탕을 굴리듯 이 생각 저 생각을 굴린다. 하지만 단물은 조금도 넘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자꾸만 생각한다. 인생은 여행일까?  
 아, 그런데 나는 왜 이 하릴없는 망상에 붙잡혀 있는 거지? 복잡한 인사동 길에서 그 이유가 떠올랐고 그간의 망상이 싹둑 끊어져 버렸다.  
 “아, 맹난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구나!”

**불교, 문학 그리고 죽음**  
 묘한 일이었다. 국수집에서 만난 맹난자(71. 수필가) 선생님은 내 입속의 알사탕을 보기도 한 것처럼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꾸며져 있는 건이냐? 내 살아 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간여역을 지나쳐 왔어요. 그 역대 아로 새겨진 일들이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역사라면 역사겠지만, 그걸 다 스쳐 지나서 최후의 종착역으로 가는 여행이잖아요.”  
 본론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와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아직도 알사탕이나 굴리고 있는 못난 착각! 맹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무수한 간여역에는 또 무수한 윤회가 있고 연기가 있고 인과가 있어요. 그 연기적 질서가 향하는 끝점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죽음이라 하는 것일 뿐이지, 죽음, 그것이 니르바나[涅槃]가 되지 못할 바에야 진짜 종착역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여태껏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지간한 욕심은 제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나 즐거운 경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상락아정을, 그 종착의 니르바나를.”  
 거뜬 되는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착각의 수렁에서 정신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그 많은 간여역을 지나오면서 일관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저의 서원이요 발원이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서원은 ‘불교로 문학하기’ 그리고 발원은 ‘문학으로 불교 알리기’죠. 그 속에 흐르는 것이 ‘죽음에 대한 탐구’ 이고요.”

너무 간단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불교, 문학, 죽음이 세 단어가 맹 선생님이 거쳐 온 수많은 간여역에 즐기차게 걸려 있다. 열차의 통과를 허락하는 신호등처럼. 맹 선생님이 거쳐 온 간여역에는 50년을 부여받고 온 화두도 있고 28년을 탐구해 온 숙제도 있었다.

물론 아직도 그 화두와 숙제는 아무에게도 점검 받지 않았고, 스스로 무릎을 치며 기뻐할 시간이 올 것 이란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불교도 문학도 죽음도 아직 뜨겁기만 하다. 종착역까지 끄떡없었다.

**번개처럼 몸을 관통하던 한 마디**  
 50년을 끌어안고 온 화두는 ‘무구(無求)면 무고(無苦)’ 라는 단어. 구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이 단어가 촌철살인의 비수로 맹 선생님의 몸을 관통했다고 한다. 그때 나이는 21세. 전쟁 직후, 자유당 시절로 대변되는 1950년대 중 후반기에 서울에서 숙명여중을 나왔고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면 요즘말로 ‘로열패밀리 그룹’ 이다. 그런 복된 날들에 찬바람이 불었다.  
 “대학 3학년 때인데 집안이 더 갈 곳 없이 무너졌어요. 부모 몰래 휴학을 하고 서울시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휴학은 하던 공부만 끊은 것이 아니라,

**정각사 김동화 박사 ‘금강경’ 강의 들으며 ‘有求면 有苦, 無求면 無苦’ 에 전을**

**죽음을 불교적 사유와 문학으로 승화 세계작가 52명 묘지 기행은 화두풀기 <그들 앞에서면...>은 대중공양이며 회향**

교우관계는 물론 그토록 정열을 바쳤던 연극 활동(연출을 했음)도 접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각사에서 진행 중인 김동화 박사의 <금강경> 강의는 빠지지 않고 찾아 갔습니다.

내가 한참 생각이 많고 고통스러워 할 무렵의 어느 날, 김동화 박사가 강의 시작하면서 후관에 ‘유구(有求)면 유고(有苦), 무구(無求)면 무고(無苦)’ 라고 쓰시는데 나는 온 몸에 천둥번개가 뚫고 지나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구하는 것이 많아 그렇게 고통을 겪어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깨우침이 나를 소스라치게 했던 겁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번개처럼 다가 온 그 한마디, 아마 그런 상황을 ‘출타동시’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때 나는 그 단어를 온 몸에 새겨 넣었던 것인지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무소유로 가는 길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또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트웨인, 릴케, 예이츠, 도연명, 소동파, 임어당, 몽테뉴 등

등 현자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결국 공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으니 구함도 고통도 다 근원은 공(空)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언제나 뒤에 있는 간여역의 풍경들**  
 “유골은 화장처리 되어 평장으로 안치했다. 본관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이 적힌 조그마한 이름표(묘석)를 그 아래 세웠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이 오롯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서 바라보니 열(列)을 따라 펼쳐진 11개의 이름표는 마치 조선 왕가의 가계도를 방불케 했다.

시아버님 밑에는 시동생이 한줄 흠으로 누웠고 그 줄 왼쪽의 빈 터가 남편의 자리쯤인 것 같다. 그 옆 자리를 눈으로 짚어본다. 흠에 놓는다고 생각하니 흠의 체온이 느껴진다. 마음이 흥분해진다. 결국 한줄 흠이다.”

맹 선생님이 최근에 쓴 수필 ‘한 줄 흠’의 한 대목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수필은 지난 봄 선영을 파묘해 수목장을 지내는 동안의 느낌을 담고 있다. 가족들이 ‘누울 자리’ 그리고 자신이 ‘누울 자리’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다. 그 따뜻함은 결국 한 줄 흠이라는 결론을 거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맹 선생님이 문학의 화두로 죽음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 곁의 죽음들과 내 안의 죽음 때문입니다. 전쟁 통에 죽은 여동생의 시신을 지키던 외딴 산골짜기 집에서의 기억, 누구보다 좋아했던 남동생의 죽음과 묘지마저 지키지 못한 괴로운 기억, 실성한 어머니의 허망한 죽음들이 내 젊은 날의 간여역에 진열된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죽음에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두 여를 봉양했어요. 어머니는 3년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더 긴 시간 고통으로 계셨는데, 나는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절해 가는 아버님을 간호하며 ‘백골관’ 수행을 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실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글을 쓸 때는 모든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알면 죽음을 즐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결코 치기(稚氣)가 아니다. 송고한 수행임에 틀림 없다. 시아버지의 사위인 가는 욕심을 마주하며 본격적으로 탐구한 죽음에 대한 공부는 28년 동안 4권의 책을 내면서 일관되게 지었다.

특히 동서양의 유명 작가 52명의 묘지를 기행하며 그들의 생사관을 천착한 작업을 통해 죽음이라는 화두를 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는 바로 그 화두풀기를 대중과 공유하려는 공양이며 회향이었다.

그런데 왜 52인일까? 맹 선생님이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듯 했다”고 말할 때 이의심이 폭발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질문하지는 않았다. 맹 선생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53번째의 선지식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은 꿰뚫어 보면 속은 텅 비어 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5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b>9번 구운</b>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b>2번 구운</b>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윤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i.co.kr](http://www.msji.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원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 (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내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환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이트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 니르바나로 가는 화두 수행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역임했던 월파 이후락 거사의 부인 정보현행보살(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회장이었던 무문회의 총무직을 맡았던 맹나자 작가(사진 왼쪽)를 만났다. 그녀는 운허 스님 초청 <능엄경> 특강, 파주 나환자촌 돌기 등 공부하며 자비를 실천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운허 스님의 세종문화회관 별관 법회는 '서물의 중심부에서 목탁소리가 울린다'며 화제가 됐다.

그렇지만 난 나무속에서 불이 되면 꽃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공즉시색이다. 조건만 맞으면 연기(緣起) 상황으로 존재하다가 조건이 다 하면 돌아간다. 우리의 생각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맹 선생님의 또 다른 근작 수필의 한 대목이다. 오래 전 화계사에서 송산 스님과 그의 일화를 통해 공(空)의 실상을 느끼는 과정이다.

## '색이나 공이나' 송산 스님 내밀던 사과 "이제는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어"

### 세종회관 별관서 운허 스님 특강 진행 <신행불교>편집 10년... "무의식 중 발원"

"무문회는 봉선사 운허 스님을 후원하는 불자들이 결성한 모임인데 봉선사 신도회 격이었어요. 운허 스님은 경향이 밝기로 당대를 호령하셨고 역경 사업의 주역이시잖아요. 무문회는 지금의 서울시의회 회관(당시 세종문화회관 별관) 자리에서 운허 스님을 초청해 <능엄경> 특강을 들었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어요. 나는 총무를 맡아 여러 일을 챙겼어요. 이후락씨나 부인 정보현행 보살님이 많이 도와주었고 중앙자 박사님과 국회의원 구임희 씨가 부회장이었어요."

-그 초청법회를 할 때 불행한 일도 당하셨다고...  
"열 살짜리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그런데 그 사고도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좀 일찍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퇴원해 집에 왔을 때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나는 간절히 기도 했어요.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부처님 일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부처님의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뒷날 가까이 사시던 광우 스님께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신행

불교>(당시의 제호는 '신행회보') 편집을 맡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게 부처님의 명령이라 믿고 1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아이의 사고가 10년이 지난 뒤에 난 것이니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아무튼 나는 <신행불교>로 10년을 보내며 불교 공부와 글쓰기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어요.

당대의 원로 불교학자와 문인들에게 원고를 받으러 다니며 내 속의 문학성이 눈을 떴다고 할까요? 아픈 아이를 안고 절규하던 내뻘은 '10년의 종노릇'이라는 무의식중의 서원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몰라요."

### 니르바나, 마지막 탐구대상

삶은 바뀌는 것이다. 한 구비가 바뀔 때마다 하나의 간이역을 통과한다. 간이역 마다 고락의 풍경화들이 남아 있겠지만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인생의 뒤안길은 쓸쓸할 뿐이다. 그 쓸쓸함의 극치는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무덤이다.

세계의 유명작가들의 죽음을 들여다보며, 거기 깊이 스미어 있는 불교적 사유로 죽음의 문제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그런 맹 선생님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직 니르바나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탐구하려 합니다. 결국 그것이 마지막 탐구의 대상이지요."

국수집을 나오니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른쪽과 왼쪽, 각자 가는 길이 반대였다. 인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몇 발을 내딛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젖은 길 위에 우산을 쓰고 가는 '53번째 선지식'이 보였다.

글=임연태(사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기도터에서

어느 곳 하나 가물기는 때 한가지. 산속이라고 여찌 다르랴. 잠간 더위를 피하고자 한다가나 다리운동을 하고자 자주 찾는 곳이 자그마한 공간, 기도터이다.

얼마나 가물었던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나면 운동화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 앉아 있다. 흡사 인절미를 곱게 만들고 난 아낙이 떡고물이 묻은 떡판을 털어 놓은 듯하다. 카키색 빛깔이 탈까. 카키(khaki)란 말은 먼지라는 뜻을 가진 범어이다. 연신 속도를 더하고 일정한 공간을 걷다 보면 발자국이 발자국을 덧씌워 누군가가 손질을 잘해놓은 고삿길 마냥 정갈해져 있다.

연전에는 밤이 으스스하도록 정진하기도 했고 새벽에 오르면 정진에 몰입하여 곧잘 먼동이 트이는 시간을 맞기도 하였다. 아름답다기보다 소박한 나의 성소는 수난을 버티다 못해 못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다. 붉게 물든 가을산의 모습은 영 아니다. 붉게 타들어간 나뭇잎을 보고 있노라면 눈이 따가워진다.

마침내 그곳에 감로수가 내렸다. 땅은 물기를 흠뻑 머금고 나무는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 자연이 모이스레 크리를 들쭉들쭉 발라 맛사지를 해 놓은 듯하다. 수기란 인간의 얼굴만 윤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풀잎 까지도 갈증을 잊게 하는 묘약인 듯하다.

물줄기가 고랑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때다 하고 삼과 호미를 들고 터의 높낮이를 고르기로 하였다. 실은 그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소나무 뿌리가 서너 군데 툭 불거져 나와 있기에 때문이었다. 흡사 노보살님의 합장한 손등에 심줄이 불거져 나오듯이, 아니지, 비유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 침엽수의 잎 끝에는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열기 넘치는 청년의 기상이 아니던가. 그러니 약간의 뿌리가 드러났다고 한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상념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겠으나 어쨌든 뿌리를 덮어주었다. 걷다 보면 무심코 밟혔던 뿌리에 대한 예우를 한 셈이다. 흙을 덧씌우니 붉은 울라온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땅을 고르느라 한 삽 한 삽 흙을 날다보니 땀이 범벅이 되었다. 옷에 소금꽃까지 생기지 않았지만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흙드러기를 멈추고 두더지가 지나간 양 부풀어 오른 땅을 다지고자 했다. 삼등으로 고르게 평탄작업을 해보았으나 귀공(鬼工)의 손놀림이 아닌걸 어찌 하랴. 서투른 목수가 연장타령 한다 했단다. 방안을 모색하였다.

때마침 먼곳에서 세영보살님이 왔다. 둘이서 두툼한 비닐갈개를 솟은 땅에 놓고 올라가 다지고 울기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일을 심리학에서 연상작용이라고 한다. 갈개를 놓고 이리저리 이동하며 땅을 다지자니 어린시절의 일이 새책같이 싱그러게 돌아온다. 보리밭을 밟아 주던 날의 기억이다.

보리는 두 해 살이 작물이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면 파종을 하고 그 보리는 추운 시기에 싹을 틔운다. 그러다 보니 겨울을 이기기가 어려워진다. 땅이 얼다 녹다를 거듭하다 보면 뿌리는 고공행진을 하기도 하고 낙하하기도 한다. 반복하다보면 뿌리가 내리기관 여간 어려워진다. 이러한 시련을 덜어주기 위해 보리밭 고랑을 밟아주는 일이 하루 일과이기도 한 적이 있다. 열중하다 보면 고무신이 무거워진다. 바닥에 덕지덕지 영근 흙 때문이다. 나뭇가지로 떼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연장을 써 떼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발이 흙무게를 못이겨 홀랑당 벗겨지는 날에는 낭패다. 언 땅을 단게 되니.

도량을 정리하고 나서 일손을 거뒀던 조공에게 향·초 공양을 올리라 하였다. 조공이

## 상념이란 지극히 주관적 생각 간절히 기도하는 성취공덕 있어

해서 미안한 일이지만 귀공이 아닌 나 역시 조공입니 것. 무슨 발원을 하라던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는 말은 필요 없는 일이다. 이미 단계는 넘었으니. 석불전전에 꾸벅꾸벅 절을 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향냄새와 흙냄새의 조화는 그 자리에 더 머물게 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 공산품이지만 원력이 있던 향과 자연의 향기 흙 내음이 깃들여져 있다.

마치 영혼을 짚을 수 있는 사진가가 있다면 맴돌고 있는 향연은 어느 영혼 앞에 다가갔는지 알 수 있으련만, 흙 내음은 인간의 것이고.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을 생각하며 아마 세영보살도 그 내용과 같이 발원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부끄러운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운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귀가길이 무사했는지 문자를 날렸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돈 가방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거금 칠천만원. 사례금이 심프로라던데 그에 턱없이 모자라는 사례금을 받아 그마저 결식아동에게 허기를 면하게 써달라고 시청에 접수시켰다더니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다.

### 색즉시공 공즉시색

"서물 화계사에서 송산 스님을 뵈는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스님은 사과를 내 오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사과 한 알을 볼까 내미시더니 '색이나? 공이나?'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답을 못했어요. 다만 그 몇 년 전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몇 년 전의 일이란,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스님을 보러 갔을 때의 기억입니다. 극락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 철웅 스님도 계셨어요. 철웅 스님과 방에 마주 앉았는데, '반아심경을 외어 보라'고 했어요. 나는 거두절미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외고 입을 닫았지요. 그랬더니 '웁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회초리를 탁탁 치면서 '색이나? 공이나?' 하고 호통 치듯 물으셨어요. 그때 나는 야부의 '금강경 송' 한 토막을 읊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철웅 스님은 박장대소를 하시지 뭐니까? 얼굴이 화끈거린 그런 순간이었지요."

-지금 송산 스님이 사과를 내미시면 뭐라 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공손하게 받아서 맛있게 먹었지요."

### 기도, 서원 혹은 절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을 지낸 이후락씨의 부인과 함께 신행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무문회'였지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합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매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KFA, KETI, EMI, LIG, ISO 9001, HACCP, ISO 13001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어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어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일공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직권간담매, 오십진조계, 오주배계 등 지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다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제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불룩 전선 10년 | 불깨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전선지초(명사용) 달들이 방식**

노랑, 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안전지초 (LED형) | LED전구, DC 9V | 백색, 노랑, 빨강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